

후평받는 강냉이가공제품들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에서—

평양의 문수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금옥강냉이 제품전시장이 문을 연 때로부터 매일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이곳 전시장은 각종 강냉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생산현장과 그것을 손님들에게 팔아주는 상점 그리고 강냉이가공음식과 음료들을 봉사해주는 식당, 차집 등을 갖춘 종합적인 강냉이제품 생산 및 봉사기지이다.

전시장의 생산현장에서는 다종 다양한 강냉이가공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무려 80여가지에 달하고있다.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강냉이 하나로 것처럼 많은 가공제품들을 만들고있는데 놀랍지만 그

가공품들이 하나같이 맛이 좋고 영양가도 높으며 저마다 감탄을 표시하고 있다.

강냉이는 영양성분함량이 많은데 비해 소화흡수율이 높지 못한것으로 알려져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산하는 강냉이가공제품들은 강냉이의 껍질, 눈을 분리한 다음 현대적인 가공설비로 미분변성하여 만들기때문에 맛이 좋을뿐 아니라 소화흡수율이 매우 높은것이 특징이다.

그래서인지 전시장에서 생산된 강냉이즉석죽수, 강냉이쌀, 강냉이우유단빵, 강냉이단목과자, 강냉이와플 등을 그득히 쌓아놓고 봉사하고있는 1층은 언제나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2층에는 강냉이랭면과 온면, 강냉이군만두, 강냉이영양단튀기를 비롯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강냉이가공음식들을 봉사하는 식사실들이 있는데 음식들은 당뇨병과 동맥경화,

로화를 방지하는데도 좋아 중년나이의 사람들과 늙은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한다.

4층에서 봉사하는 강냉이영양차도 맛이 구수하면서도 소화가 잘되어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평천구역에서 사는 한 가정주부는 《우리 아이들이 강냉이단목과자를 특별히 좋아해서 자주 이곳을 찾곤 한다.》고 말하였다.

서성구역에서 왔다는 한 로인도 《강냉이영양차맛이 아주 독특하다. 쫄강냉이를 삶아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훌훌 불며 맛있게 먹던 때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우리의 땅에서 많이 생산하는 강냉이로 다양한 강냉이가공제품들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해주시길 정말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식생활수준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하는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이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은반우에 펼쳐진 랑만의 모습

—인민야외빙상장을 찾아서—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일떠선 인민야외빙상장이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붐비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에도 흰입김을 날리며 스케트를 타고 신바람이 나서 달리는 사람들의 붉게 상기된 얼굴들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바다우를 날으는 갈매기마냥 우아한 톨돌을 펼쳐보이는 처녀애들, 은은하게 울리는 노래선물에 맞추어 은반우에 아름다운 서정을 실어보

는 청년남녀들... 그런가 하면 다정히 손잡고 은반우를 달리는 부부들이며 스케트타기 기초동작을 열심히 익혀가는 사람들, 휘거선수들의 동작을 흉내내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깔깔대는 장난꾸러기 소년들도 눈에 띄었다.

드넓은 공간에 시원하게 펼쳐진 얼음판우에서 제법 스키기술을 뽐내며 앞서거니뒤서거니 달리는 청년들의 열의도 볼만했다. 빙상장에서 우리는 평양제1중학교에서 왔다는 교원과 초·중·고학년 학생을 만났다.

《오늘 인민야외빙상장에 간다고 하니 학생들 너무 좋아 빨리 가자고 막 재촉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자주 와서 스케트를 탔더니 학급적으로 언제나 1등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끝내고는 야외빙상장에 와서 스케트를 타곤 합니다.》

누구라없이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곳 리혜경봉사원은 계절이 따로없이 늘 초만원이라고, 명절날과 일요일같은 날

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인민야외빙상장이 개업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스케트타기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었다고 말해주었다.

한번 오면 회열과 랑만에 휩싸여 시간가는줄 모르는 인민야외빙상장. 자연의 꽃은 한철에만 피지만 인민야외빙상장에서 피어나는 인민의 웃음꽃은 계절을 모르고 활짝 피어나 한겨울에도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본사기자 흥범식



사람들이 흔히 락화생을 닭아먹는데 영양학적으로 놓고 보면 닭아먹는 것이 더 유익하다.

락화생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장을 보호하며 기침을 멎게 하는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또한 락화생의 붉은

뛰어난 지혈작용을 하는 락화생의 속껍질

속껍질에 함유되어있는 성분의 지혈작용은 락화생알보다 40~50배 더 높다.

이 성분은 혈소판의 질과 모세혈관의 수축성을 높이고 응혈인자의 결핍을 막는것과 같은 작용

을 하므로 혈소판감소성 자반병 등의 치료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어떤 사람들은 락화생을 닭아 때 아까운 속껍질까지 태우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유효성분이 파괴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여을물소리 (8)

글 현명수, 그림 박봉혁

박인철이 침대 옆으로 바투 다가앉았다. 유진은 그것을 촉감으로 느꼈다.

하지만 눈을 뜰 기력조차 없는 그가 어떻게 말을 하랴. 다만 입술을 이지러 뜨렸을뿐이었다.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였다.

《여보...》 하고 흐느끼며 속향이 말하였다.

《이보시오 참사선생, 우리 령감님을 나무람 마세요. 우리 령감님은 그때 나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그 죄의식에 한생 쫓기다가 이렇게 심장병을 얻었고 지금은 죽음의 문어구에 이르렀구려. 후회란 언제나 늦게 오는 법이니 어찌겠나요. 그게 우리 불쌍한 령감님의 인생이었는데. 제발 나무람마오.》

《어머님.》 하고 인철은 속향에게 말하였다.

《저는 조국에서 선생님에게 보내는 말을 전하자던것인데... 그만 제가 늦은가 봅니다.》

《조국에서요?...》 (조국에서?...)

《윤결선생에게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쓰게 못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선생님 같으신분이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조국은 선생님을 닮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조국은 활짝 문을 열고 어서 오라고 부르고계십니다.

요전에 제가 찾아갔던 것은 선생님께서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선생명공학연구소의 학술연구대회에 초청하는 초청장을 드리자던것이었는데 그만... 조국에서는 선생님께서 고향도 방문하고 명승지관광도 하시라

고 선생님파 어머니를 부르고계십니다.》

《혹-》

속향은 오열을 터뜨렸다. 유진은 몸이 붕 떠오르는데는듯싶었다.

(내가 환각에 잠겼구나. 참사선생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 환각이다. 이미 천당의 문이 열린 모양이다. 현대 저진 된가? 저진... 그래, 저진 수성천이다. 내 고향 수성천이야! 그래, 저 아이들은 인달이, 영세... 다 있구나. 아, 저기 흰 저고리를 입은 녀인이, 그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

입원실안에 있던 속향과 윤결, 인철은 불쑥 울리는 소리에 놀랐다.

《어머니!》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유진의 얼굴우에 모였다. 유진은 희맑은 눈을 뜨고 천정을 올려다보고있

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비끼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어머니!...》

\* \* \*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다음에 봄날이었다. 유진은 속향과 함께 조국으로 가기 위해 비행장으로 향했다.

그가 병원에서 퇴원한 것은 여러달전의 일이었다.

놈이 빈손으로야 감히 조국으로 간단 말인가.

대사관의 박인철참사가 찾아가고 윤결이 권유해도 유진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 그에게로 며칠 전에 박석진의 편지가 날아온것이다.

《유진이, 나를 용서하라구...》

임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에게서 다 들었네. 너

생각하니 더욱 죄스럽고 면목이 없구만. 내가 그때 신혼기분에 들뜬탓에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자네를 외면한것만 같고... 그래서 자네의 인생을 꼭 내 손으로 망쳐놓은것만 같은게... 왜 임자의 결미를 잡아서라도 함께 귀향하지 못하였단 말인가.

사실 난 그때 임자를 평생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네. 그래서 뿔스개로 나를 찾아왔을 때도 만나지 않았던걸세. 임자가 몇푼의 돈에 유혹되어 조국의 은혜를 배반한줄로만 알았던거지. 조국이 전후복구와 사회주의건설로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학비에 보태라고 보내준 교육원조비를 받고 임자가 흘리던 눈물도 모두 허위였다고 단정해버렸단 말일세. 그러나 어머니조국은 자네의 지난날을 깡그리 용서해주었구만. 뒤늦게라도 고향을 잊지 않고 조국앞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려고 애써온 임자의 그 속죄의 마음을 조국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겨주었던 말일세.

유진이, 오라구. 어서빨리 조국으로 오라구. 와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구. 우리의 생애가 비록 얼마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여생에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함께 의논해보자구. 임자가 암스테르담에서 홀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아글타글 애썼다는 사연이 나의 가슴을 찢네. 이제라도 친구의 의리를 다하고 싶네. 오라구, 어서!... 내 임자의 고향에서 기다리겠네.

산골안개 흐르는 아침에 우리 수성천여울물에 발을 담그고 나란히 앉아 우리 고향과 조국과 그리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보세나...》

비행장에 도착하여 승강대로 오르는 유진의 가슴은 후두둑 덜뛰고있었다. 그의 귀전에는 벌써 수성천의 여울물소리가 들릴 듯하고 고향산천이 쇠-소리내어 설레이며 반기는 정경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듯싶었기때문이었다.

(끝)



지만 유진은 조국으로 갈 용단을 선뜻 내리지 못하였었다.

죽제비도 낮짝이 있다는데 어찌 배은망덕한 이

무 가슴이 미여져서 난 며칠밤을 꼬박 뜬눈으로 새우다가 이렇게 펜을 들었네. 이제야 펜을 들고 자네에게 보낼 글을 쓴다고